

2024년 7월 21일 “말씀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삶” (시 19:7-11, 14)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새로운 인격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길로써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종종 우리는 자기중심적 소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거절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예: 여호수아서 -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훗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성취

우리가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것은 최상의 축복을 가져오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확고히 걸어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본이며 길이라고 신약성경은 주장합니다.

[2] 일상 속에서 드러지는 묵상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축복)을 주는지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생기를 북돋우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며(v.7),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주고(v.8), 지키면 푸짐한 상을 주십니다(v.11).

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영원히 견고하고 한결같이 바르기 때문입니다(v.7~9).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합니다. 이 경험의 차원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설교란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예수님에 대하여 필요한 각도에서 해설해 주어서 청중이 스스로 말씀에 청종하며,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자 씨름하도록 돕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3] 묵상 실천

말씀 묵상을 위해 '매일 성경' 또는 '말씀 묵상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묵상 = 말씀을 읽고 곱씹는 과정

묵상을 시작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가이드 1 번 네 항목에 비추어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 다음, 그날의 본문을 곱씹으며 2-3 번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질문에 집중하세요.

1.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적어봅니다. 실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 요 1:1-5

- 1 절. 말씀 ->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 2 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 3 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창조주이시다)
- 4 절. 창조 된 것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는다(생명 주심). 생명 = 사람의 빛
- 5 절.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친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한 절마다 살펴 나가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겠습니까?(내게 주시는 교훈) 자원하는 결단의 내용을 성심껏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묵상 가이드 참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며 감동 받고 깨지고 회개하고 감사가 일어나는 개인적 신앙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임하여 삶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예배와 교제(공동체적) 그리고 말씀 묵상(개인적)은 삶에 진정한 힘을 제공하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지금까지 해온 묵상 방식과 이해에 관해 서로 소개해 봅시다. 어떤 유익을 경험하셨습니까?
2. 내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